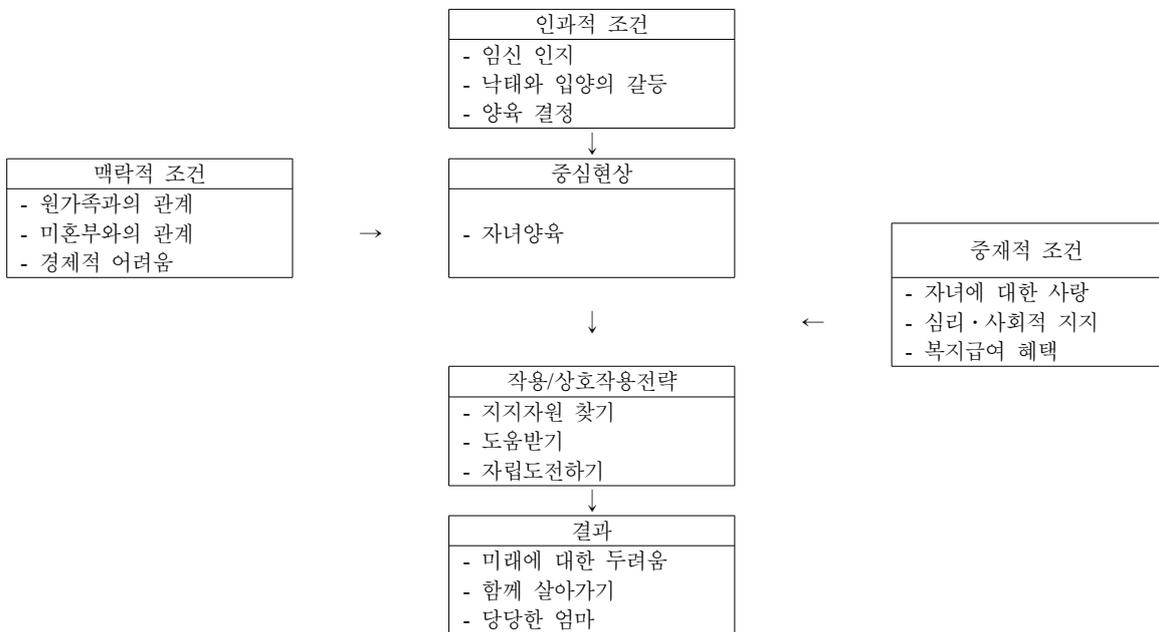


# 미혼 양육모의 생애사에 관한 연구

김 미 원(성덕대학 교수) · 김 정 옥(대구가톨릭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의 1.23명(통계청, 2010)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가진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입양보다는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양육모들의 생애에 대한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재해석하므로 미혼모 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의 수립과 지역사회의 자원 제공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문지법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와 질적 연구방법이 하나인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여성가족부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미혼모·부자지원사업 경상북도 거점기관(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긴급지원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미혼모 11명을 선정하였다. 미혼 양육모의 미혼모의 과정과 자녀양육결정과정, 생활실태에 관한 질문지로 1차 조사한 후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 양육모가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자녀양육’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의 인과적 요인은 ‘임신 인지’, ‘낙태와 입양의 갈등’, ‘양육 결정’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요인은 ‘원가족과의 관계’, ‘미혼부와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미혼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재적 요인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 ‘심리·사회적 지지’, ‘다양한 복지급여 혜택’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지지자원 찾기’, ‘도움받기’, ‘자립도전하기’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과 전략을 통해 추출된 결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함께 살아가기’, ‘당당한 엄마’로 나타났다.



<그림 1> 미혼 양육모의 생애사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미혼모들의 과거의 경험, 원가족과의 갈등, 사회적 편견,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부모로 거듭나기의 등을 생애 과정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미혼모 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중 하나로 인식 전환되고, 건강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